

믿음으로 시작된 만민의 역사

만민중앙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이 많은 국내외의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주 안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35년 만민의 역사 안에는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제단이 되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 권능이 담겨 있다.

“만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폴란드, 이스라엘에서 교회 창립 3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내민들을 만민뉴스에서 만나 보았다.

권능을 체험하는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허리디스크를 치료받고, 허리케인이 소멸되는 기사를 체험하는 등 해외 손님들이 경험한 만민의 사역.

만민뉴스

제810호 2017년 10월 2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사랑과 권능이 가득한 교회, 창립 35주년 행사

해외 23개국에서 참석, GCN방송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지난 10월 8일(주일) 오후 3시, 사랑과 권능이 가득한 만민중앙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가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는 가운데 본당 특설무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등 해외 23개국에서 방문한 내민들과 정계, 교육계 인사들 및 교계언론에서 참석하였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총 9개 언어로 동시통역 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요일 1:5)이라는 제목으로 기념예배 설교를 했다. 이를 통해 지난 35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과 선, 권능의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 보이신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어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축하공연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금모래 은모래 해변에서 추는 우아한 왈츠와 빛나는 물결 위를 달리는 수상 레포트까지, 다채로운 영상 쇼와 퍼포먼스로 환상적인 천국 연회를 표현하였다.

스페인 마라냐타교회 프란시스코 로리떼 목사는 “모든 찬양과 무용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느낌이었습니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각 찬양과 무용마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라트비아 발미에라 시 계시교회 안드레이 바폴린 목사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것은 만들거나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녹아 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손님들은 교회 창립 35년 만에 전 세계 1만 1천여 자립력교회를 이룬 부흥에 놀라워하며 만민의 사역에 큰 감동을

받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후원 연맹 회장 안드레 가지롭스키 박사는 “만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민은 해가 갈수록 더욱더 놀라게 성장할 것이며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불리고 아셀메 총회장은 “만민의 사역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이재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교회 앞마당에는 천국의 꽃길을 배경으로 한 포도존과 남·여선교회, 가나안, 청년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마련되어 성

도들은 물론, 초청받은 일가친지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다.

전야예배로 드린 10월 6일 금요일야예배 1부에는 ‘만민은 하나’(고전 12:18~20)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후,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가 인사말을 통해 이 목사의 기도로 허리케인 ‘어마’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2부에는 ‘만민’이라는 주제로 축하공연이 진행되어 지난 35년 동안 펼쳐진 권능의 사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로 나온 만민을 노래와 무용, 영상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다큐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밖에 해외 손님들은 10월 9일(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바다의 짠물이 단물로 변한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성경상의 역사(출 15:25)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5)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 ‘예수가 왜 구세주가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등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수많은 말씀을 친히 풀어 주셨지요.

‘천국’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지옥’ 말씀을 풀어 주심으로 많은 영혼이 죄에서 돌아켜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셨지요.

이처럼 말씀을 양식 삼다 보면 자녀들에게 오직 좋은 것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안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축복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물질과 건강의 축복, 치료의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신 28장).

저와 본 제단은 전 세계 많은 영혼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세계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각종 해외 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는 물론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과 다국어로 번역한 책자들을 통해 성령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있지요. 현재 『십자가의 도』는 59개 언어로, 『천국』(상)권은 34개 언어로, 『천국』(하)권은 26개 언어로, 『지옥』은 34개 언어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밖에 100여 권의 신앙서적이 61개 언어 460여 종으로 발간되어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앞으로 도 주의 종들이 깨어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선(善)입니다.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과 사랑만 가득하신 분입니다(요일 1:5). 반대로 악은 전혀 없으신 분이요,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악이 조금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8장 13절 전반

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그래서 이 제단을 택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닦아가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로 성결된 자녀들로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성결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요(딤후 4:5). 그래서 본 제단은 개척 때부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 다니엘절야 기도회를 통해 날마다 불같이 기도함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큰 죄악만이 아니라 미세한 악까지 버려나갔지요.

이제는 본 제단뿐 아니라 GCN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어 국내외 지·협력 교회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 본 외부 목회자와 성도들은 “만민의 성도들은 대단하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던 초대교회와 같다.”며 놀라워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만민의 성도들은 불세례를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을 닦은 영혼들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올 것입니다.

셋째로, 권능입니다.

본 제단에는 늘 권능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권능으로 전 세계에 펼쳐왔지요. 특히 올해 크게 나타난 권능은 단연 천기를 움직이는 권능이었습니다. 바로 기온 조절과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를 막는 일들이었지요.

기온 조절의 경우,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만민은 수련회 기간 내내 시원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5~26도로 조절되어 최상의 날씨 가운데 수련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열 재앙에서 지킴받은 고센 땅처럼 수련회가 열린 전북 무주 지역만 전국 폭염특보 지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이처럼 천기를 움직이는 권능은 해가 갈수록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태풍이 경로를 바꾸거나 힘을 잃었고, 높은 파도가 잠잠

해졌으며 가뭄이 든 곳에는 비를 내렸습니다. 반대로 비를 멈추기도 하였지요. 올해 수련회 전에는 태풍 ‘노루’가 우리나라에 북상한다는 소식에 저는 수련회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즉시 진로가 바뀌었고, 한 차례 더 기도하자 예상 경로에서 100킬로미터나 멀어졌지요.

놀라운 권능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성도님, 여러 목회자님들의 요청으로 저는 9월 8일 오후 7시 45분경 허리케인 ‘어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한 대로 진로를 바꾸고 약화되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오후 9시에 소멸됐지요.

이처럼 지금까지 기도해 물리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만 해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화산폭발이나 지진, 태풍, 가뭄을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불치 난치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의 역사도 지난 35년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능을 나타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재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신은 없다.” 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크게 나타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찾는 이들을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만민을 향한 섭리를 이루시고자 ‘만민’이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차 만민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선과 사랑, 권능은 이전과 족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나가듯 지난 35년간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제단이라는 위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과연 만민중앙교회의 역사 안에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끔찍한 지옥은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두셔서 죄를 짓게 하셨나요?”라고 묻습니다. 더 나아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민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5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강건하게, 가난한 자는 부요케 하셨고, 불행한 가정에는 화목을 주셨지요. 이 사랑은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풀어지는 말씀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절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축하공연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잔 워즈나르 의사

| WCDN 2018 폴란드 콘퍼런스 조직위원 |

만민중앙교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면과 지적인 면을 아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완벽한 표본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지금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그러한 것들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도록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참으로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저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감발레 빈센트 목사

| 콩고민주공화국 신앙 깊은 교단 고마 감독회장 |

35년 만에 눈부시게 성장한 만민의 사역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진정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종이며, 이 마지막 때 어둠 가운데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들은 생명의 말씀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주 친절하고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셨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놀랍도록 기도를 잘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지요.

창립 35주년 축하공연도 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한 공연이었습니다. 마치 하늘 문이 열리고 제가 새 예루살렘에 와 있는 듯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바다의 잔물이 단물로 바뀐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를 직접 방문하여 아주 기뻐했습니다. 무안단물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희는 콩고민주공화국 고마 지역에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만민국제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성결의 복음을 배우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목회자가 이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주의 종과 일꾼들은 참으로 멋지십니다”

보제나 가지롭스키 여사

|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후원 연맹 이사 |

만민중앙교회 창립 35주년 축하행사에 함께하게 된 것은 제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크게 성장한 교회를 보며 놀랐고, 멋진 목회자님들과 일꾼들에게 놀랐습니다.

특히 이재록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게 손을 얹으셨을 때 제 자신이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순간처럼 느껴졌고 평안함 가운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고관절 통증이 사라져 많은 시간을 걷고 계단을 오르내려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축하공연은 아주 잘 구성되어 훌륭했고, 마치 천국에 있는 듯했습니다. 천국을 전하는 메시지였지요. 너무나 멋진 체험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만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입니다!”

지난 10월 초, 창립 3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23개국에서 해외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 무안단물터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만민'을 직접 보고 체험한 그들의 행복과 감동이 넘치는 고백을 들어본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발레리 이반니크 목사
| 독일 베를린 인터내셔널 가스펠센터 담임 |



“허리케인 ‘어마’를 잠재운 것은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였습니다”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
|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



저는 이재록 박사와 함께하며 행복 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마크 바잘레프 목사와 함께 허리케인 ‘어마’의 위협에서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가 왔을 때 저희 도시와 플로리다에 있는 많은 주민이 피난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도 빨리 피난을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재록 박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었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곳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를 통해 허리케인의 진로를 다른 쪽으로 틀어 주셨고,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곳을 다니며 이재록 박사와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미 이재록 박사를 잘 알 뿐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었으며 만민중앙교회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섬’, 만민중앙교회를 통해 그 사랑이 더 크게 역사되어 전 세계를 덮고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덮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대형교회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사랑이 많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교회는 처음입니다.

이재록 박사님을 처음 만났지만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친근했고, 사랑이 많고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겸손함, 이것은 배우고 따라야 할 목회자의 본입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의 사역이 가능한 줄 압니다.

성도들은 사랑스러웠고 자신의 목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목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들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아 교회들이 힘을 잃고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은 강력한 영성과 깊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목자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대형 성가대, 많은 찬양팀과 무용팀, 무대와 음향, 조명 등 공연도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특히 모든 곡을 하나님께 직접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수준 자체도 최상급으로 대단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영적 감동에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성결을 외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매년 3천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이 자리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외치는 만민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든 느끼게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리아 워즈나르 박사
| WCDN 2018 폴란드 콘퍼런스 조직위원장 |



저는 허리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한 시간 이상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허리 아래쪽이 시큰거렸고 오른쪽 발가락 두 개에 감각이 없었지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제 마음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10월 6일(금), 이재록 목사님을 뵈 수 있었고 만남 후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때 치료된 것입니다.

다음날인 7일(토), 자고 일어나니 허리에 통증이 전혀 없었고 서울 투어를 위해 많은 시간을 걸었음에도 통증과 다리 저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도 잘 잘 수 있었고 이후로 아무런 문제도 없지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창립 35주년 축하공연 또한 매우 훌륭했고, 공연을 볼 때 저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느끼며 그 실체를 맛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WCDN 콘퍼런스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과 많은 사람이 참석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이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